

先進國의 輸入規制와 그 對處方案

鄭 錫 振*

1. 序 言

1987年들어 國內 타이어 業界는 曄曄한 變革과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美國市場에 轉중되어 있던 輸出市場이 EC 및 中東 등지로 급속하게 多邊化하고 있고, 다음으로 우리의 타이어가 世界一流製品에 못지 않은 名聲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自體 브랜드의 開發 등 이미지 提高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國內 타이어 業界의 當面課題인 輸出車에 國產 타이어 附着을 위하여 全業界의 努力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중 外國의 有名 브랜드 導入이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 또한 元豐 타이어가 宇成産業으로 發展의 改編을 하여 새로운 각오로 世界 타이어 市場에 進出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타이어 業界로 보아 87年度 한해가 상당히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차 持續的인 輸出 및 이로 인한 타이어 業界의 成長이 87年度의 活用 여하에 따라 크게 그 樣相을 달리한다고 表現할 수 있다. 우선 올해는 여러가지 情況으로 보아 輸出이 상당히 增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國產車 輸出과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타이어 輸出이 늘고 또한 輸出市場이 多邊化하는 만큼 相對國

의 輸入規制 또한 多樣化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證證하는 先進諸國의 輸入規制에 效率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方案에 대하여 論해 보고자 한다. 이는 타이어와 같이 장차 品質面에서나 名聲面에서 볼 때 輸出이 急速하게 增加될 品目에 있어서는 時宜適切한 論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保護貿易主義의 새로운 傾向

(1) 傳統的인 自由貿易의 退潮

제 2次世界大戰 이후의 世界貿易은 自由貿易을 기초로 그 秩序가 형성되어 왔다. 즉, 그 以前의 保護貿易主義의 經濟的인 폐해와 歷史的인 經驗을 거울삼아 美國을 中心으로 GATT-IMF 體制가 確立되고 Kennedy Round 및 東京 Round 등을 통해 關稅·非關稅 장벽이 完化되고 또한 GSP 制度의 도입과 開途國에 대해서는 相互主義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貿易上의 우대조치를 하는 등 世界各國은 自由貿易秩序의 확대와 發展을 위해 曄曄한 努力을 하여 왔으며 이는 상당한 效果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1970年代 이후 世界經濟는 1960年代보다 낮은 成長을 하는 가운데 開途國과 產油國의 抬頭로 先進諸國經濟의 地位가 상대적으로 점차 低下되고 있으며 先進國間에도 美國, EC 등 歐美經濟力의 活力은 日本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어 先進國間에도 比較優位構造가 變化하고 있다.

*商工部 輸出 2 課

(2) 保護貿易의 새로운 擡頭

70年代 先進國은 새로운 先導産業의 開發이不振하였던 결과 産業調整이 지연됨으로써 鉄鋼, 造船, 纖維 등 구조적인 不況産業이 發生하고 失業이 增大되었다. 이에 따라 自國産業保護를 위한 貿易 장벽의 설치와 輸入規制의 강화 등 保護貿易主義를 強化하고 있으므로 80年代에는 더욱 그 傾向이 加速化되고 있다.

過去에는 海外輸入品에 대해 自國産業을 보호한다는 受動的의 次元에서 輸入을 규제하는 것이 그 本流였으나, 最近에는 能動的이고 적극적인 次元에서 輸入規制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知的의 所有權까지 확대되어 國家間의 무역마찰은 더욱 深化되고 있다. 이와 같은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는 경기변동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生産性的의 低下 및 賃金, 利子 등 生産要素, 價格의 上昇 등 先進國經濟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그 原因이 있으므로 장차 쉽게 해소될 展望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의 強化는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 대한 輸入規制強化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의 對處方案이 더욱 切實하다고 하겠다.

(3)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의 形成

先進國은 보호무역주의의 強化와 상호주의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世界貿易秩序에 대한 基本理念을 과거의 自由貿易(Free Trade)에서 公正貿易(Fair Trade) 또는 管理貿易(Managed Trade)으로 전환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貿易秩序의 理念은 Fair Trade라고 할 수 있으나, 이 Fair의 概念自體가 自由貿易, 즉 他國과 同一한 條件에서의 경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는 兩國間 雙務的의 次元의 問題解決概念인 相互主義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理念에 따라 美國의 對外通商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선 덤핑, 補助金支給 등 不公正貿易行爲는 公正貿易의 立場에서 철저히 規制하며 相互主義立場에서 상대국의 市場開放을 강요하고 나아가 각종 보복적 조치와 法律을 마련하고 있는 바, 最

近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國에까지 위와 같은 相互主義와 市場開放을 要求하고 각종 보복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EC의 경우 貿易秩序의 理念은 美國과는 달리 自國의 不況産業의 構造調整과 成長産業이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輸入規制 및 産業支援政策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上述한 點에서 볼 때 앞으로의 世界貿易秩序는 管理된 自由貿易秩序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貿易秩序에서 先進國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原則을 對外去來의 基本으로 할 것이다.

첫째, 先進國들은 比較劣位인 産業은 貿易秩序를 확립한다는 취지하에 덤핑, 보조금지급 등 不公正貿易을 시정한다면 輸入을 철저히 規制할 것이며,

둘째, 比較優位 産業分野에서는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市場開放壓力을 加重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保護貿易主義의 長期化, 서비스 貿易擴大 및 知的의 所有權 保護問題 등 國際交易上의 새로운 課題의 擡頭, 그리고 東京 Round에서 해결되지 못한 問題 등 GATT 體制가 無力化함에 따라 美國과 日本을 중심으로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인 우루과이 Round가 1986年 9月 出帆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에도 불구하고 最近의 美日半導體紛爭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進國의 輸入規制에서 비롯되는 貿易紛爭은 가히 戰爭으로까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深化되고 있는 現實이다.

3. 先進國의 對韓輸入規制動向

(1) 對韓輸入規制의 특징

先進國의 우리나라 商品에 대한 輸入規制의 특징은 첫째, 新保護貿易主義의 擴大로 自律規制協定 등 GATT 原則을 무시한 輸入規制의 增加 및 先進國의 무역적자해소를 위한 相互主義的의 市場開放壓力이 加重되고 있음을 들 수 있고,

두번째로는 反덤핑 등 價格規制가 強化되고 있으니 이는 公正貿易이라는 측면에서 規制에 대한 正當性 主張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86年度 新規提訴 19件 중 13件이 價格規制인 反덤핑,

相計關稅提訴이다.

셋째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두번째와有關한 것으로서 즉, 우리가 提訴당한 件에 대한 무혐의 判定률이 1980~82年은 18.2%, 84年에는 44.8%, 86年은 70%인 바 이는 提訴 그 自體에 따른 조사 및 절차상에 따른 實質的인 輸入規制效果를 보기 위한 意圖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네번째로는 輸入規制對象品目이 섬유·잡화등 勞動集約的인 輕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海洋構造物 등 大型 Plant까지 擴大되고 있다는 점이다.

(2) 輸入規制의 形態

先進國의 輸入規制 형태는 大別하여 數量規制, 價格規制 및 行政規制를 들 수 있다. 이 중 數量規制는 1986年末 現在 52件으로서 纖維쿼터 協定 등 政府間協定 14件, 對英 신발 쿼터 등 兩國의 業界間協定 10件 및 EC의 양종이 통조림 등 輸入國의 一方的 쿼터 設定 28件으로 되어 있으며, 價格規制는 對美 Color TV 등 反덤핑 提訴 등 32件, 또한 行政規制로는 日本 및 유럽 地

(3) 國別 規制品目 및 輸出比重

國 別	規制件數	規 制 品 目	'86 規制下 輸出比重 (%)
美 國	9	纖維類, 自轉車 타이어·튜브, Color TV, 앨범, 코킹건, 普通鋼, 管 이음쇠, 石油試錐裝備, 黃銅板	33.7
캐 나 다	18	纖維類, 女性用 신발, 防水 고무화, 앨범, 핸드백, 電子 오븐, 스텐레스 鋼杯, 漁網用 로프, 大型形鋼類, 中厚板, 비닐코팅 編織物, 炭素鋼管, 스텐레스 鋼管, 앨범시트, 合金工具鋼, 鐵條網, OCTG, ABS 레진	35.2
E C 共 同	4	纖維類, 鐵鋼製品, 양종이 통조림, 신발類	35.7
西 獨	1	金屬製洋食器	36.1
英 國	4	TV, 金屬製洋食器, 신발類, Music Center	31.8
프 랑 스	10	라디오, 黑白 TV, 玩具類, 우산類, 타일類, 絹製品, 雜製品, 쿼츠 時計, 電話機, 電子 오븐	47.7
베네룩스 3國	3	金屬製洋食器	31.3
덴 마 크	1	"	42.2
스 케 인	1	컴퓨터 關聯品目	33.3
이 태 리	2	라디오, TV	46.9
오 스트리아	1	特定纖維類	22.2
스 웨 덴	2	特定纖維類, 無線電話機	20.8
노 르 웨 이	3	特定纖維類, 革製衣類, 타이어	4.1
핀 랜 드	1	特定纖維類	8.0
日 本	16	生絲, 絹捻絲, 絹織物, 綿絲, 참치, 鮮魚類, 乾오징어, 海苔, 미역 및 다시마, 革靴, 皮革, 絹 2次製品, 醫療機器, 電機, 電子製品, 電信·電話用 機材, 우산	19.6
濠 洲	20	냉연 및 아연강판, 靑色顔料, 폴리올레핀백, 乘用車用 타이어, 치약, PVC 레진, 신발類, 人造編織物, 고무 및 플라스틱製衣類, 革製衣類, 乘用車, 綿布, 타올, 衣類, 베드린넨, 커튼, 침낭, 변압기, 용접강판, 프탈酸디옥틸	25.9
計	96		31.2

域의 行政指導, 品質規格, 特許權侵害 등 형태로 의로기기 등 12件에 이르고 있다.

4. 장래의 輸出戰略

1980年代의 海外市場與件은 前述한 바와 같이 先進國間,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무역마찰이 深化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NICS 諸國은 先進國 輸入規制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中共을 포함한 後發開途國의 추격에 시달려야 하는 現實에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輸出增大와 經濟成長을 하기 위해서는 輸出戰略을 다음과 같이 多樣化하고 또한 補完할 필요성이 絶실히 要求되고 있다.

(1) 輸出商品의 高級化 및 新製品開發

1970年代의 우리나라 輸出은 단순제품의 값싼 輸出에 그 특징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輸出商品은 제값을 못 받는 品目이 대부분이었는데 80年代에는 새로운 商品의 開發과 패션 및 디자인의 開發로 외화가득율을 向上시켜 先進國型 輸出構造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輸出市場의 開拓

앞으로는 단순한 輸出方式, 즉 注文→生産 및 輸出方式의 下請輸出을 지양하고 우리의 고유 상표 및 브랜드를 개발하여 輸出市場을 적극적으로 開拓 내지 창조해 나가는 戰略이 要求된다고 본다. 사실 OEM 輸出方式이 우리나라의 輸出에 공헌한 바 컸으나 現時點에서는 OEM 輸出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輸出市場의 多邊化

先進國의 輸入規制壓力이 加重되는 80年代에는 市場多邊化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등장할 것인 바, 1986年의 우리나라 輸出市場構造는 美國 40%, 日本 15.6%로서 美國과 日本 두 나라에 55.6%를 輸出하는 偏重構造로 되어 있다.

이러한 偏重構造는 해당국의 輸入規制를 유발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未修交國을 포함한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輸出價提高 및 過當競爭防止

1980年代에는 과거의 輸出 제 1主義에 따른 外형위주의 輸出에서 벗어나 外화 가득율과 價格을 提高하는 方向으로 輸出政策을 전환하여야 하고 특히 國內輸出業界는 自律의 으로 規制를 하는 方法 등으로 業界間 輸出秩序의 維持에 적극 努力해야 하며 과당경쟁에 의한 出血輸出은 적극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5) 不公正貿易去來의 防止

準先進國으로서의 評價를 받는 우리나라는 위조 상표, 모방 상품, 특허권 침해 등 不公正貿易去來의 방지에 최선의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不公正貿易은 개별적으로 輸入規制 및 提訴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商品全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不公正去來의 방지는 政府次元에서 보다는 業界스스로의 건전한 倫理觀에 의해야 더욱 效率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6) 海外投資의 活性化

海外投資가 날로 深化되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에 對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最近의 급증하는 製造業海外投資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先進國들은 보호주의를 強化하고 있는 反面에 自國의 失業問題의 해소 등을 위해 外國投資의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開途國들도 投資財源의 부족으로 外國人投資를 환영하고 있다. 86年의 貿易收支上 黑字示顯 이후 우리나라의 製造業 海外投資는 政府의 活性化政策에 힘입어 向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輸出企業은 이러한 諸般與件을 적극 活用하여 外國의 輸入規制에 對處하고 尖端技術의 導入 및 原料의 確保 측면에서 海外投資에 관하여 진지한 檢討 및 實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政府에서도 輸入規制에 對處하기 위한 海外投資에 대해서는 특히 그 活性化方案에 많은 關心과 支援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